

다시 만났 친구

임아영

나는 1학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가있었다. 그 아이는 '하운'이다

그리고 그 친구는 3학년이 되기 전쯤 이사를 갔다.

이유는 아직도 모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점점 잊혀지고 있었다.

3학년이 되며 많은 것들이 점점 바뀌어갔다.

나에게 매우 좋은 친구 지금도 나에게 착한 친구가 생겼다.

4학년말쯤 다시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받은 설렘 받은 두려움이었다.

만났다.

5학년이 되고 피아노학원에서 친구와 놀다가 소개했다.

마음이 조금 쓰라렸다. 왜냐하면 하운이는 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날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걸

학교에서 하운이를 마주쳤다.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 뒤로 여러 번 마주쳤다. 왜냐하면 하운이는 옆 반이었으니까.

그리고 가끔 만났다. 모르는 사이로.

나는 하운이를 봐서 꽤 좋았다. 다만 아직 기억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

괜찮아. 나에게 좋은 친구 들이 있으니까.

하운-가명